

지역 장례식장 146곳... 화장장 최대 가동

제주항공 참사 유족 지원...광주 23곳·전남 123곳 도 장례지도사 투입...순천시, 화장장 사용료 면제

광주시와 전남도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의 원활한 장례를 위해 장례식장을 미리 확보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2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지역에 확보된 장례식장은 광주 23곳, 전남 123곳이다.

광주에는 조선대병원을 비롯해 기독교 병원, 보훈병원 등에 이용할 수 있는 안치실과 빈소가 마련돼있다.

그린장례식장에는 12개 안치실과 4개 빈소가, 남문장례식장에는 10개 안

치실과 5개 빈소가, 기독교병원에는 8개 안치실과 2개 빈소가 이용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에서는 공설인 순천의료원(안치실 10개)을 비롯해 목포 19곳, 여수 9곳, 순천 6곳, 나주 10곳, 광양 5곳, 담양 3곳 등 장례식장이 준비돼있다.

전남도는 장례지도사 77명을 투입해 사고 수습을 지원하고 임시 영안시설로 활용할 저온 컨테이너 11대를 설치해 가동 중이다.

시와 도는 장례가 몰릴 것에 대비해

남은 장례식장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장례식장이 부족할 경우에 대비해 전복 등에 남은 장례식장도 확보했다.

이와 함께 광주시와 전남도는 무안 국제공항에서 유족이 장례식장을 찾을 경우 곧바로 희망하는 장례식장을 연결해 원활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유족에 전남 공무원을 배치해 장례 절차 안내 및 요구사항을 파악·해결하고, 희생자 운구부터 장례, 발인, 화장까지 모든 장례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화장장도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등 희생자 장례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광주 화장시설인 영락공원은 화장장

운영 시간을 기존 오전 8시-오후 4시에 오전 7시-오후 5시로 2시간 연장했다.

영락공원 추모관에는 유족들을 위해 별도 안치실도 마련했다.

순천시는 지역 화장시설 사용료를 전액 면제해 유족은 거주지와 상관 없이 순천 화장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장례식장을 최대한 확보해 유족에게 우선 지원하고 있다"며 "화장장은 하루 최대 50건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참사 희생자에 광주 85명, 전남 72명으로 지역민이 가장 많다.

/특별취재반=변은진·양시원 기자

오늘의 날씨

☀ 해돋이 07:41 해질 17:33
🌙 달돋이 10:13 달짐 21:01

인천	서울	춘천	강릉
-4/1	-5/2	-10/3	-3/4
대전	전주	대구	부산
-4/4	-2/3	-3/5	0/6
목포	광주	제주	여수
0/4	-1/4	5/8	1/5
흑산도	제주	여수	
-1/4			

광주	구름많음	-1/4
목포	구름많음	0/4
여수	구름조금	1/5
나주	구름많음	-3/4
완도	구름조금	0/5
구례	구름조금	-2/4
강진	구름조금	-1/5
해남	구름많음	-2/5
장성	구름많음	-3/4
보성	구름조금	-3/4
순천	구름조금	-2/5
영광	구름많음	-3/3
진도	구름많음	1/5
흑산도	구름많음	-1/4
고흥	구름조금	-2/6

● 생활정보지수

👉 날씨가 30 나들기 조심해요

👉 빨래 50 아이들건조 좋아요

👉 세차 60 세차하기 좋은날

👉 운동 30 실내운동 즐겨요

● 바다 날씨

위치	오전/파고(m)	오후/파고(m)
서해 앞바다	0.5-1.5	0.5-1.5
남해 앞바다	0.5-1.0	0.5-1.0
동해 앞바다	0.5-1.5	1.5-2.5

● 전국 날씨

날짜	광주	서울	강릉	대구	제주
1월 4일(토)	☁ (-1/6)	☁ (-5/4)	☀ (-4/6)	☀ (-3/7)	☁ (5/9)
5일(일)	☁ (-1/8)	☁ (0/6)	☁ (1/8)	☁ (-3/8)	☁ (4/12)
6일(월)	☁ (2/8)	☁ (0/5)	☀ (2/8)	☁ (1/10)	☁ (8/12)

▶ 날씨안내 : 국번없이 131

'다문화가족 전통시장 장보기' 서구, 100가구 각 20만원 지원

광주 서구는 2일 "다문화 가족을 위한 '어서와, 양동시장'은 처음이지'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구에 거주하는 초기 입국 다문화가족이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며 한국 고유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 이내 입국 2년 이하 다문화가족으로 서구는 100가구를 선착순으로 선정해 각 20만원 상당의 은누리상품권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오는 8일까지 광주서구가족센터(062-389-0072)에 방문해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주성학 기자



뒷새화 된 여름철새 백로 겨울 한파에도 따뜻한 남쪽나라로 떠나지 않은 여름철새인 백로 무리가 2일 오전 서구 양동 광주천 일원에서 몸을 잔뜩 웅크린 채 힘겹게 월동 하고 있다. 백로 등의 여름철새가 겨울 추위에도 이동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점점 뒷새화 되고 있는 현상은 환경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가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난방 등의 열로 도시 주변이 따뜻하고 물도 얼지 않는 곳이 많아진 점도 뒷새화의 주된 원인으로도 거론된다. /김영근 기자

제주항공 참사 닷새째... 조문 행렬 이어져

새해 첫 출근길 직장인·군인 등 광주 합동분향소 찾아 희생자 기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닷새째인 2일에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

새해 첫 출근길이기도 한 직장인들은 이날 이른 오전 분향소를 찾아 헌화하고 묵념으로 애도의 뜻을 표했다.

상주 역할을 하는 감기정 광주시장과 남구의회 의원들은 조문객을 맞으며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출근길 분향소에 온 이모(37)씨는 "오늘이 2025년 첫 출근날이다. 며칠 전부터 조문을 와야겠다고 생각했으나 눈물이 날 것 같아 마음을 조금 진정하느라 왔다"며 "고인들의 명복을 진심으로 빈다"고 말했다.

이어 헌화를 마친 이들은 방명록에 "천국에서는 부디 행복하세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랑하는 후배 000, 0

00님" 등 희생자를 추모하는 메시지를 남겼다.

전남도교육청에서 근무했던 김재원(70)씨는 "아끼던 후배들이 이번 참사로 유명을 달리해 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방문했다"며 "희생자들이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길 바라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서 안전대책을 강화해 주길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오후에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 소속 군인 35명이 단제로 방문해 헌화하며

희생자들을 기렸으며 분향소는 개인부터 가족 단위 조문객들까지 온종일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5살 자녀와 함께 온 장시현(35·여)씨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 아이의 엄마로서 착잡한 심정이다. 남은 유가족들이 이 슬픔을 잘 극복하시길 바란다"며 "언제 어디서 생길지 모르는 사고에 불안할 뿐이다. 사고 원인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후 6시 기준 약 2천700명의 추모객들이 합동분향소를 찾았으며,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누적 방문객은 1만6천800여명으로 집계됐다. /주성학 기자

남구, '유아 숲 체험원' 참여기관 모집

유치원·어린이집 대상 오는 10일까지 접수...3월부터 운영

광주 남구는 2일 "아이들의 오감 자극과 상상력 등에 도움을 주는 유아 숲 체험원 프로그램 참여기관을 오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유아들의 숲 속 놀이와 생태학습을 위한 '2025년 유아 숲 체험원 프로그램'은 3-12월 산림 교육시설인 제봉산 마법의 숲 체험원과 풀빛 근린공원 유아 숲 체험원에서 진행된다.

후서기를 제외하고 총 7차례에 걸쳐 매일 1회씩 모둠별 숲 체험 활동이 전개되며 프로그램 참가 아이들은 꼬마 마법사로 변신해 유아숲지도사 4명과

함께 다양한 체험 활동에 나선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남구청 홈페이지(www.namgu.gwanju.kr)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은 뒤 구청 8층 공원녹지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062-607-3805), 담당자 이메일(flowaway@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남구는 공개 모집을 통해 70모듬(모듬당 인원 8-15명)을 선정하며, 오는 17일 선정 결과를 참여기관 담당 교사 휴대전화로 공지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남구청 공원녹지과(062-607-3843)로 하면 된다. /주성학 기자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여전히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현장이면서 인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하고 인정이 넘치는
녹차골 보성향토시장**

◎ 장이 서는 날 ◎
2, 7일로 끝나는 날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보성군

문의 : 062)650-2099